

# 최근 美 Personal Computer 市場 動向

美 컨설턴트 회사의 D·H 골드 스타인 社長은 「Desk-top Publishing」(卓上印刷)은 하룻밤 사이에 Sensation 을 일으켰다고 말할 정도로 卓上印刷가 각광을 받고 있다. 同社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Desk-top Publishing (이하 DP로 생략) 시스템의 수요자는 현재 5만을 넘어섰으며 88년 1월까지 10배 규모인 50만에 달할 전망이다. DP는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확실한 보급이 전망되는 次世代 Business System으로 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2년전인 85년, 애플 컴퓨터社의 프린터인 「레이저 라이터」와 알다스社의 page식 인쇄용 Soft인 「page maker」가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DP의 성장기가 시작된다. 86년의 DP 売上규모는 4억弗, 이것이 87년에는 3배인 12억弗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I. 6개의 주요 機能

DP의 비약적인 보급이 예상되는 배경에는 인텔80386칩을 탑재한 기계가 보급되어 가장 보편

적인 알다스社의 Soft인 「Page maker」를 IBM의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P에 관한 시볼드·리포트에 의하면 DP 시스템의 기능은 6가지가 있다고 한다.

① Page layout-文章의 欄이나 graphics의 再編成을 간단히 할 수 있다.

② 文章構成.

③ Style sheet 文書의 format를 용이하게 편집할 수 있다.

④ graphics-描線만이 아닌 幾何學무늬나 패턴을 작성할 수가 있다.

⑤ Page discription language interface 에 text와 graphic의 취급을 통일하는 device를 부여한다.

⑥ Multi-user 機能-file管理와 높은 操作性을 유지한다.

이들 6개의 기능 가운데 Software 업자들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Multi-user 機能」이다. 경쟁격화의 87년은 各社에서 한결같이 제품의 差別化를 피하기위해 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II. Multi user 에의 注力

시볼드 리포트의 편집자 피터 다이슨씨에 의하면 앞으로는 Micro computer, Laser printer, Page식 인쇄용 Soft, Hard disk 및 Image scanner를 포함하는 DP시스템이 업계의 지표가 되어, 현재 量販되고 있는 다른 Soft와 마찬가지로 지원체제도 갖추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DP시스템의 가격은 1만弗에서 1만2천弗로 판매되고 있다.

DP의 普及을 촉진시킨 것은 매킨토쉬라고 누가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프로社의 電子出版Product Director인 톰·호울즈씨는 「많은 매킨토쉬가 다른 Application이 아닌 卓上出版을 하기 위해 구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매킨토쉬용으로 쓰여진 Software 중에는 알다스社의 「Page maker」, 맨해튼·그라픽社의 「Ready set go」, 레트라세트社의 「레트라 페이지」의 3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금년은 DP시장이 PDL(페이지 記述言語)의 해가 될 것이라는 소리가 높다.

애플사의 「Laser writer」용으로 아도브 시스템사가 개발한 「Post script」가 현재 DP 시장에서 톱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휴렛팩커드사(HP)의 「Laser jet」용으로 발매된 이마렌사의 「DDL(文字記述言語)」가 금년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년은 이외에 제록스사가 同社の 4045와 같은 中低速Printer용으로 高容量과 Multiuser環境을 실현하는 「Inter Press」를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Ⅲ. 3가지 언어의 普及段階

CAP 인터넷사설사의 수석 상담역인 캐시 디그만씨는 「87년의 상반기에는 이들 3가지의 言語가 보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DDL은 Concept가 보급되면 HP사의 Laser-jet가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응용기기 Software개발회사가 일제히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록스사가 4045에 Inter press를 설치하면 Post script나 DDL과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 Ⅳ. End user 用

Laser Printer와의 Interface에 관한 PDL은 대기업이 직접 구입할만한 제품은 아니다. 데이터프로사의 톰 홀름즈씨는 「PDL은 End-user용이다. DP를 Main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PDL이 없는 Laser printer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마렌사의 제품판매 매니저인 윌트애플화이트씨는 「user측으로 보면 Post script나 PDL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Printer의 through put가 완전히 되는 것을 희망하는 Application쪽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PDL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의 하나는 보다 좋은 DP를 하기 위해 Application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Word-process를 하는 것이라면 PDL은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다.

### Ⅴ. Software의 互換性

또 홀름즈씨는 「PDL에서 중요한 점은 DP 시스템을 구입하는 Customer는 Software의 互換性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PDL, Post Script, Inter Press의 차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Post script와 Inter press는 동일한 기본언어로 되어 있다. 아도브사의 존 와녹사장은 「내가 에반스 & 사자란드사에 재임하고 있을 때 CAD/CAM 시스템용 언어 「디자인 시스템」을 썼다. 제록스사에 옮겨 가서 이 언어를 Inter press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JAM」 언어의 개발에 사용했다. 「JAM」은 거의가 Post script와 같은 언어이다. 이에 상당한 수정을 하여 Inter press가 생겼다. 그러므로 Inter press와 Post script는 공통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DP가 사무실 환경에 침투하는데 따라 Multi-user application을 위해 Micro computer를 사용하는 기업측에서 接統性을 둘러싸고 不安感이 고조되고 있다.

接統性에 대해서는 현재 ASC II(情報交換用 美国標準 코드)에 의거하여 IBM의 PC와 애플 컴퓨터사의 매킨토쉬(MAC)사이에서 text file의 伝送에 할 수 있을 정도이며 graphics의 伝送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단계에 있다.

### Ⅵ. 標準코드 未確立.

보잉 컴퓨터 서비스사의 出版시스템部長인 보브 서키즈씨는 「標準코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C와 MAC간에서 graphic을 伝送할 경우 문제가 많으며 企業측 수요자는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기업이 사용하는 패키지의 수를 파악하지 않으면 Hardware面만이 아니라 Software面에서도 接統性의 문제에 직면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接統性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알다스사에서는 MAC用 페이지식 인쇄 Software

「Page maker」Version 2.0과 IBM의 PC용 Software 「Page maker」Version 1.0을 곧 발표한다. 이에 따라 D.P. Application에 관해서는 PC·MAC간의 완전한 互換性이 실현된다고 한다.

알다스사의 벤 로트르트씨는 「PC와 MAC 간의 최종적인 接續性은 兩 Personal Computer의 특징도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이다. IBM社 PC의 Word processer기능은 MAC를 월등하게 능가하지만 Graphic program에 있어서는 MAC가 PC를 능가하는 것 등이다. 兩 Hardware의 완전 互換性을 실현시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format의 統一이다」라고 한다.

PC, MAC 兩 Hardware간에서 伝送할 경우 file은 2進法 format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graphics는 Picture format으로 보내진다. 로트르트씨에 의하면 graphic의 伝送은 PDL (페이지記述言語)을 사용해서 할 수 있으나 MAC용의 새로운 「Page maker」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서키즈씨는 「당사에서도 ISO (국제표준기구)나 TOP (Technical Office Protocol)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IBM, 휴렛 팩커드(HP), 왕, 제록스 및 DEC社의 Micro computer 사이에서 완전한 接續性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VII. Desk-top이 최적

또 DP에 관한 시볼드 리포트의 편집자 조나 단시볼드씨는 「文書의 format을 만드는 데는 Desk top computer가 最適이며 수요도 많다」고 말하면서 接續性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esk-top publishing system을 일반기업이나 産業회사 나아가서 개인 수요자에게도 침투하고 있다. 용도는 Newsletter, Report, 팜플렛, Direct mail 등 여러가지가 된다.

## VIII. 많은 「MAC」User

User 중에는 애플 컴퓨터사의 마이크로 컴퓨터 「맥킨토쉬(MA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주간으로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는 텍

노로직 패트리나사의 리차드 샤퍼씨는 「MAC는 나의 사업에 불가결한 것이다. News letter는 6~8 Page로 구성, 바쁜 독자가 많기 때문에 graphics나 Chart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同社에서는 2대의 MAC와 애플사의 프린터 「Laser writer」를 사용하고 있으며 Software에는 애플사의 「맥드로, 이노베이티브데이터 디자인사의 「맥드라프트, 알다스사의 「Page-maker」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샤퍼씨는 「현재 MAC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면 코스트는 5배에서 8배나 더 든다」고 말하고 있다.

샤퍼씨와 같이 Desk top publishing system을 Newsletter작성에 완전 활용하고 있는 수요자가 있는가 하면 廣告나 Direct mail에 이용하는 수요자도 많다.

現代繪畫를 취급하는 画郎주인인 빅토리아 모이즈씨는 「MAC은 廣告의 디자인이나 Direct mail의 作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서도 이용하고 있다. 현재 MAC프레스와 Laser writer를 사용하고 있으며 Software는 맥라이트 맥드로, 맥포인트 및 폴란드사의 Interface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다니엘 키간씨도 MAC의 열렬한 수요자의 하나이다.

## IX. User浸透 加速

키간씨는 「변호사의 일은 설득하는 것이다, 1 Page로 전하고 싶은 정보나 図表를 사용,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다. MAC는 特許, 商標, 저작권 등의 분쟁에서 자료용으로 맥포인트를 사용하여 로고마크를 그릴 수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매월 2,000부를 발행하는 소책자의 편집자 톰 해밀턴씨는 「소책자는 4色인쇄로 평균 40페이지. 작은 부수로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도 모르지만 Desk top system을 사용하면 비용을 낮게 억제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